

‘절차탁마’ 준비된 ‘그들’...위기에서 빛 발하다

KIA 2025 시즌결산

〈4〉부진속에서피어난 새 희망

오선우, 올시즌 최고의 히트상품·김호령 ‘호령존’ 존재감 과시
‘다시 쓴 야구 인생’ 고종욱, ‘잇몸 야구’ 선봉 뜨거운 6월 이끌어
성영탁,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예약...김태형, 선발진 개편 키맨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5시즌은 리그 8위로 막을 내렸다. 디펜딩 챔피언의 기쁨은 추억으로 사라졌

지만, 희망은 있었다.

팀 부진 속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드러낸 ‘깜짝 스타’들이 있어서다. 오선우·김호령·고종욱(야수), 성영탁·김태형(투수)이 그 주인공이다. 올 시즌 KIA의 최고 히트상품은 단연 오선우(29)다.

124경기에서 타율 0.265, 18홈런, 116안타. 생애 첫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내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 타율 3위에 올랐다. 2019년 2차 5타운드(60 순위)로 입단한 그는 오랜 2군 생활 끝에 4월 1군에 콜업됐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4월 타율 0.306, 5월에도 3할대를 유지하며 타선을 견인했다. 특히 6월에는 팀 타점 2위에 오르며 KIA의 반등을 이끌었다. 실력 뿐 아니라 수려한 외모까지 갖춰 여성 팬들의 호응도 뜨겁다. 체력과 변화구 약점만 보완한다면 ‘거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내·외야를 넘나드는 멀티 포지션 능력은 공수의 옵션을 더해준다. 2026 시즌에 오선우가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중견수 김호령(32)은 흔들리던 외야의 중심을 다시 세웠다.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된 포구로 ‘호령존’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보살 7개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특유의 강한 어깨를 과시했다.

타격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였다. 시즌 타율 0.283은 데뷔 이후 커리어하이. 2루타와 도루도 팀 내 2위에 오르며 공수 양면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수비 전문’이 아닌 ‘공수겸장’으로 완전히 변신했다. 프로 11년차의 긴 백업생활을 뒤로 하고 마침내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았다. 부상만 없다면 내년에도 외야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베테랑’ 고종욱(35)은 인생야구를 썼다.

6월 초 주전들의 이탈로 1군에 올라온 그는 곧바로 리드오프로서 공격의 시동을 걸었다.

6-7월 타율이 3할대를 웃돌았고, 출루율 0.317·득점권 타율 0.321로 꾸준한 생산성을 유지했다. 외야수비도 안정적이었다.

수비 기여 지표인 종합 RAA(2.19)에서 팀 내 좌익수 1위다. 그가 합류한 6월부터 KIA의 반등세가 시작됐다.

올 시즌 가장 뜨거운 한 달이었다. ‘함평 타이거즈’라 불린 잇몸 야구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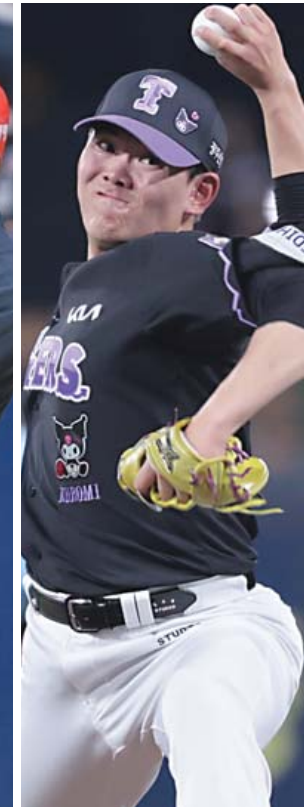
오선우



김호령



고종욱



성영탁



김태형 <KIA 타이거즈 제공>

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선 그라운드에서 매 순간 마지막처럼 뛰었다.

그의 진심이 팀의 온도를 바꿔놓았다. 경기 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향한 인터뷰는 팬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다.

신인 불펜 성영탁(21)은 마운드의 신선한 바람이었다.

4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45, 3승 2패 7홀드. 리그 전체 구원투수 중 ERA 3위의 기록이다.

숫자보다 인상적인 것은 신인답지 않은 배짱이다. 매 경기 자기 공을 던졌고, 2-3이닝을 유연하게 소화했다. 체력·멘탈·위기관리 모두 수준급이었다.

KIA 불펜 운용의 폭을 넓히고, 안정감을 키운 ‘보험 장치’다. 신인왕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당연했다.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많다. 2026시즌 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우완투수 김태형(19)은 시즌 막판 가장 눈에 띈 젊은 피였다.

150km 이상의 빠른 구속과 다양한 변화구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범호 감독이 “내년 선발 경쟁에서 충분히 통할 카드”라 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록 숫자는 평범했지만, 내용은 그 이상이었다.

젊은 투수답지 않은 집착함으로, 경기 내내 흐름을 유지했다.

2026시즌 KIA 선발진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밖에 윤도현과 김석환도 묵묵히 제 몫을 다했다. 윤도현은 공수 양면에서 주전으로 도약했고, 김석환은 뜨거운 방망이로 매서운 호랑이 발톱을 세웠다. 때로는 주전보다 강했고, 더 뜨거웠다.

팀 성적은 아쉬웠다.

그러나 올 시즌 KIA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무너지는 듯해도 꺼지지 않는 불씨, 그 중심에는 새 얼굴들과 베테랑의 헌신이 있었다. 그래서 팬들은, 다시 봄을 기다린다.

/주홍철 기자

브라질전 완패→파라과이전 완승...홍명보 “정신적 어려움 극복”

월드컵 모의실험·포트2 수성 성과

“패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달 A매치 2연전을 끝낸 한국 축구대표팀의 최대 성과는 ‘정신적 어려움 극복’으로 꼽힌다.

홍명보호는 10일 ‘삼바축구’ 브라질을 상대로 이렇다 할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5골이나 헌납하는 망신을 당했지만, 14일 ‘남미 복병’ 파라과이와 대결에서는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2-0 완승을 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브라질과 랭킹 37위 파라과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각각 5, 6위를 차지하며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국가들이다.

홍명보호는 지난 9월 미국 원정으로 치러진 A매치 2연전에서 미국을 2-0으로 꺾고, 멕시코와 2-2로 비기는 좋은 성과를 내고 10월 A매치 2연전을 준비했다.

‘삼바축구’ 브라질과 첫 대결에서 홍명보호는 수비진이 ‘탈탈’ 탈리며 5실점이나 내주는 완패를 당했다.

최악의 경기력에 참패를 맞은 대표팀은 두 번째 상대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베스트 11을 8명이나 바꾸는 변화를 선택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한국전에 앞서 일본과 2-2로 비겼던 파라과이를 상대로 엄지성(스완지시티)과 오현규(헝크)의 연속 골로 2-0승리를 맞았다.

무엇보다 파라과이전 승리가 중요했던 것은 ‘패배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에 있다.

초반 수비 조직력이 다소 흔들리기는 했지만, 빠른 득점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후반에 교체로 투입된 오현규와 이강인이 득점을 합작하며 용병술에서도 큰 성과를 맞았다.

남미의 강호들과 치른 평가전은 홍명보호의 스리백 실험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

브라질전 완패 뒤 홈 감독은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한국축구 A매치 최다 출전 새역사... ‘레전드와 레전드의 만남’

지난 14일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 축구 대표팀의 친선경기 시작 전 차범근 전 감독이 손흥민의 A매치 역대 최다 출전 기록(137경기)을 축하하며 기념 유니폼을 전달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브라질전 출전을 통해 A매치 통산 출전 137경기를 달성하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우리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서다”라며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면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점을 찾으려고 평가전을 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브라질전 패배는 FIFA 랭킹 23위를 지켜야 하는 홍명보호에도 악영향을 준 터라 파라과이전은 전술 실험뿐만 아니라 승리로 절실했다.

오는 12월6일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은 11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본선 진출국 48개국을 4개 포트(12개국씩)로 나눠 실시된다.

최초 3개국(미국·멕시코·캐나다)을 제외하고 FIFA 랭킹 1-9위는 포트1, 10-23위는 포트2

등으로 나뉜다. 포트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강팀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9월 FIFA 랭킹 포인트에서 1천593.19점을 쌓아 23위에 자리한 한국은 브라질에 패해 포인트 3.44점이 깎였지만, 파라과이전 승리로 208점을 보태 1천591.84점을 기록했다.

FIFA 랭킹을 실시한 계산하는 ‘풋볼랭킹닷컴’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FIFA 예상 랭킹은 2위로 한 계단 올랐다.

다만 에콰도르(1천588.82점)와 호주(1천588.25점)가 바짝 추격하고 있어 11월 A매치 2연전에서 홍명보호에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안산이 지난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 여자개인전 예선경기를 치르고 있다. /김예리 기자

광주은행 안산, 왕중왕戰 ‘금빛도전’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 출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세계 양궁 왕중왕을 가리는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안산은 17-19일 중국 난징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우승자 강재영(현대모비스)과 함께 출전한다.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은 올해 열린 네 차례의 월드컵 대회에서 남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출전하며, 여기에 월드컵 개인전 성적으로만 산정되는 랭킹 포인트 상위 3명과 개최국 우수 선수 1명이 더해져 각 중

목별로 총 8명이 출전한다. 동일 국가에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강재영은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출전권을 확보했다. 강재영은 2019년 모스크바 대회와 2023년 에르모시우 대회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파이널 우승에 도전한다.

안산은 2차 대회 5위, 3차 대회 2위, 4차 대회 6위 등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2025년 월드컵 랭킹 포인트 4위에 올랐으며, 2022년 트락스칼라 대회 이후 3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 복귀해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

신진서, 아쉬운 불계패...1승 2패로 란커배 준우승

신진서(25) 9단이 란커배 2년 연속 우승을 놓쳤다.

‘디펜딩 챔피언’ 신진서는 15일 열린 제3회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 결승 3경기 최종 3국에서 중국 당이페이(30) 9단에게 195수 만에 백 불계패했다.

이로써 종합 전적 1승 2패가 된 신진서는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날 백을 잡은 신진서는 좌변 전투에서 밀

렸지만, 상변 흑진에서 당이페이의 실수를 틈타 형세의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막판 끝내기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른 탓에 하중양 요석 2점이 잡히면서 형세가 기울고 말았다. 자책하던 신진서는 몇수 더 두다가 돌을 던졌다.

란커배 2연패에 실패한 신진서는 개인 통산 10번째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도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됐다.

/연합뉴스